

##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고찰

이준혁(목원대)

---

### 1. 들어가는 말

시온신학의 기원 및 연대에 관한 연구는 1950, 60, 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원 및 연대에 관한 어떤 합의점도 학자들 사이에서 찾을 수 없었다. 고전역사비평의 시대 이후, 다양한 성경연구방법론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시온전승을 고정된 사상의 개념('fixed' concept of ideas)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심지어 인그리드 험(Ingrid Hjelm)은 "성경 자체의 연대기와 사건의 과정을 전제로 판단할 때, 시온 이데올로기는 텍스트 뒤에 세워진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그것이 발생하는 텍스트의 네러티브 구조와 분리되어 있다. 만약 이데올로기가 텍스트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원과 발전에 대한 다른 역사적 맥락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sup> 구약성

---

1 인그리드 험(Ingrid Hjelm)에 의하면 시온신학은 역사적으로 독립된 이데올로기가

경 자료의 기원과 텍스트의 연대에 대한 불확실성, 시편과 예언서의 불확실한 관계성으로 인해 성경연구의 문학적 전환은 학문적 작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 이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 시온신학을 통시적인 접근방법보다 공시적인 접근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텍스트의 연대문제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과 질문에 비해 과소 평가되었고, 텍스트의 연대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안티 라토(Antti Latto)의 책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에서 발표한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편집비평, 전승역사와 문화간의 이동을 분석하여 다윗-솔로몬 시기에 시온신학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sup>2</sup> 이미 그는 1998년, 그의 책 *About Zion I Will Not Be Silent*에서 공시적인 접근방법으로 시온이 이사야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는 시온의 운명이 최종 형태의 이사야서의 구성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그의 책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에서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온에 관한 공시적인 접근의 한계를 시사하며 여전히 연대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필자는 평가한다.<sup>3</sup>

---

아니라 성경 텍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Ingrid Hjelm, *Jerusalem's rise to sovereignty: Zion and Gerizim in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6을 보라.

2 Antti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T&T Clark: Bloomsbury Publishing, 2018), 1-282.

3 라토(Latto)는 그의 책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에서 “이 아티클(Understanding Zion Theology in the Book of Isaiah: 이사야서에서 시온신학이 중심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이 책과 병행되며 나의 독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시온신학을 역사적인 이사야 선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That article is a parallel product of this monograph and gives my readers the possibility to see how I consider Zion theology as an essential part of the proclamation of the historical Isaiah)고 하였다. A Latto, 윗글, 7.

따라서 시온신학에 관한 연구에서 연대문제는 간과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기원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기원설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부스 기원설 둘째, 이사야 시대 기원설 셋째, 실로-법궤 기원설 넷째, 다윗-솔로몬 시대 기원설이다.

## 2. 시온신학의 기원설

### 1) 여부스 기원설

여부스 기원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부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에 관한 전승을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온의 불가침 전승은 이스라엘 이전 시민인 여부스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 여부스인들의 지역 종교는 가나안 종교로 여겨졌다. 즉,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미 여부스인들은 불가침 전승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그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채택되어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폰 라드(Von Rad)와 롤란드(Rohland)에 의해 제기되었고, 슈미트(H. Schmid), 헤이즈(J. Hayes), 루크(Fr. Luke), 슈라이너(J. Schreiner), 스톨쯔(F. Stolz), 슈미트(W. H. Schmidt) 등의 지지를 받았다.<sup>4</sup>

4 스톨쯔(Fritz Stolz)는 여부스인들의 영향이 다윗시대의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다윗은 유혈사태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둘째, 헷사람 우리야를 포함한 이전의 여부스의 귀족층이 다윗왕실에 존재했다. 셋째, 사독은 원래 여부스인들의 제사장이었다. 넷째, 나단은 여부스의 제의 예언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로버츠는 이런 제안은 근거가 불확실한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Fritz Stolz, *Strukturen und Figuren im Kult von Jerusalem, Studien zur altorientalischen vor- und frühisraelitischen Religion*, BZAW 118 (Berlin: W. de Gruyter, 1970), 7-8; J. J. M. Roberts,

폰 라드(Von Rad)는 역사적 이사야가 그의 예언에 두가지 선택전승 즉, 시온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전승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사야 17장 12-14절에서 묘사된 국가를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모티프(Motif)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패배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기적에 의한 패배이며 저녁과 아침 사이에 어떤 사건의 언급도 없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텍스트의 연대를 앗시리아의 예루살렘 함락실패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역사적 이사야가 그 사건에 관하여 묘사할 때 완전히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역사적 이사야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승을 역사적 이사야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 전승을 시온시편(시 46, 48, 76편)과 연관지었다. 왜냐하면 시온시편에도 시온을 공격하는 적들을 패배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역사에서 이런 사건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적 전승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폰 라드(Von Rad)는 이런 신화적 전승을 이스라엘 이전 예루살렘 거주민으로부터 기원한 전승으로 판단하였다.

헤이즈(Hayes) 역시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가 되었을 때 두 가지 특별한 전승들 즉, 다윗의 선택과 시온의 선택전승들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 두 전승들은 왕가 이데올로기에 빠르게 보안되었고 선언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연관된 다윗 전승이 이스라엘 이전의 전승인 여부스 왕의 계승과 관련하여 배치되었다고 보았다.<sup>5</sup> 마찬가지로

---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2), 314.

5 다윗의 신적 합법성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를 테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의 뒤를 이룰 ‘씨’는 개인, 단수였다. 여기서 ‘씨’의 정체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역대상 17장 11절에서 ‘씨’는 다윗의 자손들이다. 즉, 이 예언의 선택은 다윗의 집(왕가)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사야 55장 3-5절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시온의 선택과 관련된 전승들은 이스라엘 이전 전승들과 합쳐졌다고 보았다. 시온시편들은 이스라엘 역사 이전 자료들으로써 시온과 하나님을 묘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시온은 신적 보호를 받는 곳으로 표현된다. 시온시편에 묘사된 시온의 난공불락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살펴보면 비-이스라엘의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데 강이 흐른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신화적 표현이고 이런 묘사는 이전 예루살렘에서 숭배되던 엘-엘리온의 거처를 묘사하는 것이다(창 14:18). 시편 48편 2절에도 시온을 가리켜 바알의 산인 '짜폰산'으로 묘사한다. 더불어 시편 48편 7절은 시온의 지형과 관계없는 다시스의 배가 깨어진 것에 관하여 묘사한다. 따라서 헤이즈(Hayes)는 시편 48편의 자료는 일차적으로 다른 도시에 적용된 것인데 시온에 이차적으로 적용되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지리적 장소와 관계없이 신화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주장하였다.<sup>6</sup>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여부스 기원설을 평가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성경에서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부스족의 신앙과 전승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나 외부 자료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 이전의 여부스족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이 우주산이나 거룩한 신적 짜폰산과 같은 정치적, 종교적 중요성을 지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대 신화를 예루살렘에 적용하는 시도는 다윗의 정복, 법궤의 이동, 솔로몬의 성전 건축

---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대해석 되었다. 이런 면에서 이 전승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보게 된다. 더불어 이 다윗 전승과 왕위 즉위식 시편(시 19, 89, 132)의 연결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다윗 가문의 왕좌선언은 여부스 사상과 제의로부터 취해진 이스라엘 전 자료와 연결할 수 있었다. 시편 110편 4절과 창세기 14장 18-24절의 멜기세덱 전승은 이스라엘 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John H. Hayes, "The Tradition of Zion's Inviolability," *JBL* 82 (1963): 420을 참고하라.

6 Hayes, 윗글, 419-426.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 2) 이사야 기원설

이사야 기원설을 대표하는 학자는 클레멘츠(Clements)다. 그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믿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제의 전승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요소임을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제의가 신적인 산에 관한 신화와 관련된 것, 반역의 세력과 원시적인 물의 혼돈과 연계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7</sup> 오히려 클레멘츠는 시온전승의 예루살렘 불가침 교리가 주전 701년 사건(산헤립 퇴각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특별히 채용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온신학에 존재하는 시온의 불가침성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 이를테면 다윗시대가 아닌 후대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는 본거지를 시온으로 보는 개념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시온에 관한 언급과 열왕기하 18장 17절-19장 37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히스기야와 산헤립의 대치 사건에 대한 그들 자신의 관점에 근거하여 이 시온전승을 이끌어 낸 것으로 주장한다.<sup>8</sup> 이 같은 이론을 토대로 그는 이 시온전승의 교리가 이사야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안티 라토(Antti Latto)는 시온신학의 형성시점을 이사야 혹은 포로후기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였다. 라토(Latto)에 따르면 시온시편

---

7 R. E. Clements, *Isaiah and the Deliverance of Jerusalem*, JSOTSup 13 (Sheffield: JSOT Press, 1984), 78.

8 Clements, 앞글, 75.

의 최종형태는 분명 포로후기로 볼 수 있으나<sup>9</sup> 그 시편들 안에는 오래된 전승이 존재하고 시편기지는 그 오래된 전승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테면 시편 48편 1-7절은 우가릿 본문에서 증명된 오래된 신화적 개념과 몇 가지 평행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8-14절은 우가릿 본문과 평행을 찾기 힘들다. 더욱이 만약 시편 48편 8-14절이 솔로몬 시대에 이미 구성된 것이라면 왜 유다만 언급되고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도시는 간과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더불어 시편 48편 10절에서 '주의 이름'과 '땅 끝까지'라는 용어 사용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용어 사용은 포로 후기 신학사상으로서 이름(שֵׁם) 신학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적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sup>10</sup> 따라서 8-14절이 포함된 시편 48편의 최종형태의 연대는 포로 이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시편 48편 1-7절은 우가릿 본문에서 증명된 신화적 개념과 몇 가지 평행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편 48편 1-7절에서 하나님을 혼돈의 물과 싸우는 폭풍-신으로 묘사하는 오래된 신화적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돈의 힘은 시온을 공격하는 적과 동일시된다. 또한 시온은 폭풍-신의 산인 '짜폰산'으로 식별된다. 또한 우가릿 신화에서 폭풍-신이 혼돈의 괴물 바다(얌무)를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신다(시 48:7). 이런 모습

9 완케(Wanke)가 시온시편(시 46, 48, 76편)의 연대를 포로이후로 보는 근거는 언어적 특징이다. Günter Wanke, *Die Zionstheologie der Korachiten in ihrem traditions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BZAW 97 (Berlin: de Gruyter, 1966), 23-31;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01에서 재인용.

10 시편 48편 2절에서 '콜 하에레츠'(כָּל־הָאָרֶץ)는 땅(land)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전 700년, 키르벳 베이트 레이(Khirbet Beit Lei)에서 발견된 비문에서 '온 땅의 하나님'(God of the whole land)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 비문에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보편주의적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비문은 '유다의 산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것이요'(the mounts of Judah belong to the God of Jerusalem)라는 글이 적힌 비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A. Latto, 앞글, 116을 참고하라.

들은 시편 48편의 최종 편집자가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오래된 신화적 모티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11</sup>

더 나아가 시온신학의 기원을 포로기 이후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편 48편 2절의 짜폰(צִפּוֹן)에 관한 묘사 때문이다. 시편 48편 2절의 짜폰은 자벨 엘 아크라(Jebel el-Aqra, Mt. Kassius in Greek texts, Mt. Huzzi in Hurrian Text)로 여겨지는 폭풍신(Strom God) 바알-하닷이 거하는 거룩한 산으로 식별된다.<sup>12</sup> 로빈슨(Robinson)에 의하면 시온산을 짜폰과 동격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신의 존재의 신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한편, 신 앓시리아 시대 서부 셈족 지역의 신적 세계는 영적으로 이해되어 졌다.<sup>14</sup> 즉, 신전의 이미지는 하늘의 신의 거처가 지상의 신전으로 현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장 좋은 예는 시편 11편 4절에서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여... (시 11:4, 개역개정)

신의 천상거처와 신전 사이의 연결은 나부아팔리딘(Nabuapaliddin, 885-850bce)의 부조에 잘 나타나있다. 그 부조에 묘사된 것은 사제(Nabunadinshum)가 왕을 이끌고 가는데 신(goddess Aa)이 그들을 따라 태

---

11 A. Latto, *윗글*, 99-116.

12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17; Richard J.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2), 143.

13 A. Robinson, "Zion and sâphôn in Psalm xLViii 3," *VT* 24(1974): 120-21.

14 Klaus Koch, "Ḥazzi - šafôn - Kassion: Die Geschichte eines Berges und seiner Gottheiten," in Bernd Janowski and Klaus Koch, eds.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OBO 129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3), 171-223;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03에서 재인용.

양신 샤마쉬(Shamash)의 신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 부조에 묘사된 것을 통해 샤마쉬(Shamash)가 하늘보좌에 있고 왕과 신의 만남은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5</sup> 따라서 신이 하늘에 거하는 개념은 신 앓시리아 시대부터 고대근동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이 땅의 산에 거하는 개념은 후대로 볼 수 없다. 또한 신적 공의회의 개념도 초기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리더임을 강조했으나 후대에는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유일신(사 40-55장)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신적 공의회의 리더로 실제 거하시는 시온에 관한 묘사는 신 앓시리아 시대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야 기원설은 시온 주제와 이사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사야 이전 시대와의 역사적 연관성과 신학적 사상을 단절시켰다고 볼 수 있다.

### 3) 실로-법궤 기원설

시온신학의 기원을 실로전승, 법궤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예레미야스(Jörg Jeremias)이다. 그에 따르면 다윗전승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온전승을 고대 이스라엘의 법궤전승의 갱신(updated)으로 보았다.<sup>16</sup> 이 견해는 시온산의 신화를 가나안 전통과 법궤전승(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융합으로 본다. 시온전승이 진정한 이스라엘 전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기원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법궤와 관련된 전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올렌버거(Ollenburger)에 따르면 시온신학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의 왕권 사상은 이스라엘 사회에 왕정 체도를

15 A. Latto, 윗글, 103.

16 Jörg. Jeremias, "Lade und Zion: Zur Entstehung der Ziontradition,"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1971): 195-197.

도입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점을 실로에 있었던 법궤로 판단한다. 법궤의 왕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 예루살렘/시온은 하나님의 보좌이자 안전과 피난처의 상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이와 유사하게 에일러(Eiler)도 시온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법궤와 관련된 주제의 발전으로 이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오토(Eckart Otto) 또한 시온전승을 형성하는데 실로성소와 법궤전승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시온전승의 기원을 실로-법궤로 주장하는 올렌버거는 1) 출애굽-실로 2) 왕정시대 3) 포로 후기 라는 시대적 구분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왕권 사상이 이스라엘 왕정제도 전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너무 빈약해 보인다. 왕정제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왕으로 묘사한 성경본문은 오직 출애굽기 15장 18절뿐이며 그 외 하나님을 향해 ‘왕’(מֶלֶךְ)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로버츠(J. J. M. Roberts)에 의하면 출애굽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은 왕정 이후의 하나님이 왕이란 개념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또한 올렌버거는 전사로서의 하나님과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올렌버거는 제왕등극사에서 ‘크게 기뻐함(Rejoicing)’과 왕권을 긴밀히 연결시킨다. 제왕등극시에 여호와가 왕(יְהוָה מֶלֶךְ)이심을 선언하고 뒤이어 기뻐하라는 말이 등장한다(시 96:10-13; 97:1-9; 98:1-9). 시편 98편 4절과 6절은 ‘여호와 앞에서 즐겁

17 Ben C.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 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13-162.

18 David L. Eiler, "The Origin and History of Zion as a Theological Symbol in Ancient Israel"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68), 330-331.

19 Eckart. Otto, "Silo und Jerusalem," TZ 32.2 (1976): 65-77.

20 J. J. M.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Indiana: Eisenbrauns, 2002), 332-337.

게 소리칠지라(הריעו)'고 증언한다. 이런 점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는 소리(תרועה)를 블레셋 사람이 듣게 된다(삼상 4:4-5). 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즐거이 환호(תרועה)하며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게 된다(삼하 6:15).<sup>21</sup> 즉, 그는 제왕등극시의 표현과 사무엘상 4장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전사로서의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사무엘상 4장 4-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는 소리(תרועה)는 거룩한 전쟁(Holy War)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왕등극시에 등장하는 기뻐함과 사무엘상 4장을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명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은 종교적 정당성이 부족한 예루살렘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궤 이동 사건이 시온 전승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시온 전승 전체의 기원을 실로-법궤 시대로 돌리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4) 다윗-솔로몬 기원설

다윗-솔로몬 기원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로버츠(Roberts)이다. 그는 롤란드(Rohland)가 제시한 시온신학의 네 가지 요소가 여부스 전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부스인들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언덕을 시온산으로 불렀다는 것이다(삼하 5:7). 즉, 시온산은 처음부터 신화적론적인 명칭이 아니라 예루살렘 언덕을 가리키는 실명이다. 또한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에 대한 신념은 시온산 특유의 지형적 요인에 근거한 여부스인들의 자신감으로 본다. 다윗은 시온

21 Ollenburger,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37.

을 정복하고 시온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시온을 수도로 삼는 과정속에 종교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다윗은 법궤를 시온으로 이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으셨고 다윗을 그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는 다윗의 선택과 예루살렘의 선택의 연결점에 관한 증거로써 함무라비 법전의 서언을 지적했다. 이 서언에서 함무라비는 바벨론의 정의의 보증인으로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왕은 마르둑(Marduk)의 현신이며 신앙의 수호자이다. 즉, 함무라비는 마르둑(Marduk)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sup>22</sup> 이 서언에서 함무라비는 바벨론의 정의의 보증인으로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왕은 마르둑(Marduk)의 현신이며 신앙의 수호자이다. 즉, 함무라비는 마르둑(Marduk)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sup>23</sup> 이 서언을 로버츠(Roberts)는 시편 78편 68절, 132편 10-18절,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의 서언에서 도시는 마르둑(Marduk)의 통치의 장소로서 함무라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장소로 지정된다. 따라서 도시는 신의 선택된 대리인(agent)과의 연합으로부터 신의 정당성을 받게 된다.<sup>24</sup>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선택전승은 다윗의 통치 전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다윗을 선택한 전승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윗의 종교적 선전(propaganda)를 발전시켰으나, 솔로몬은 전통의 창시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고대근동에서 왕이 왕위에 오를 전임자를 위해 신적 선택전승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예가 없기 때문이다. 즉, 시온신학은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의 산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였다. 로버츠는 다윗의 말년에

22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3.

23 "The Code of Hammurabi," trans. Theophile J. Meek(ANET, 164).

24 "The Code of Hammurabi," trans. Theophile J. Meek(ANET, 178).

시온전승이 발전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많은 모티프들이 솔로몬 초창기에 채택되었다고 주장한다.<sup>25</sup> 로버츠가 시온신학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종주권에 대한 믿음, 둘째, 그의 거주를 위한 시온의 선택이다.<sup>26</sup> 시온신학에서는 하나님을 큰 왕(시 48:2)으로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로버츠에 따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큰 왕이신 여호와와 기본적인 개념을 가나안 종교에 있는 신화에서 채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여호와는 엘(El)과 동일시되고, 바알을 묘사하는 이미지는 결국 여호와와 것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의 거주지(거룩한 산과 강 이미지)는 시온으로 옮겨졌다. 이는 당시 그 지역의 정복자였던 다윗 제국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신학적인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27</sup> 즉, 이스라엘은 봉신국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바치게 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에게 익숙한 엘(El)과 바알의 신화적 특성과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시온신학의 구축 과정은 다윗 제국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시온신학이 가진 세부적인 양식은 신화와 역사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반을 계획하는 행동, 음모에 대해 대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모티프도 다윗-솔로몬의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연례적인 공물의 헌납을 태만히 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솔로몬 시기 발생한 세 차례의 반란(왕하 11:14-25)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25 Roberts,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343-346.

26 Roberts, *윗글*, 343.

27 Roberts,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324-330.

자에 대항하여 반란을 도모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모티프가 생겨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sup>28</sup>

2018년 안티 라토(Antti Latto)는 그의 책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을 통해 시온신학의 형성을 다윗-솔로몬 시대로 주장하였다. 그는 시편에 사용된 폭풍-신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폭풍-신의 이미지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동안 대중화되었고, 그것이 성전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시편 29편, 48편에 사용된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는 요소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시온신학의 내용과 열왕기상 6-7장에 나오는 성전의 건축적 세부사항 사이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속죄소 위에는 작은 그룹들이 있었으나(출 25:17-22), 솔로몬은 성전의 지성소에 또 다른 두 개의 거대한 그룹들을 설치했다(왕상 6:23-25). 여기서 솔로몬의 두 그룹은 높이가 각각 10규빗, 날개가 10규빗이다(왕상 6:23-25). 이 날개의 양 끝은 벽에 닿았고 중앙에서 두 날개는 서로 닿아 있었다(왕상 6:27). 라토(Latto)의 해석에 따르면 솔로몬의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욱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큰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폭풍-신의 이미지

28 Roberts, *윌겔*, 328-330.

29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은 것은 시리아-페니키아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과 열왕기상 6-7장은 Ain-Dara에서 발견된 신전(주전 10세기 초반)의 건축과 평행을 이루어 묘사되었다고 주장한다. Ain-Dara 신전 입구에 있는 거대한 발자국은 크고 위대한 신을 묘사하는 것이고 두 개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와 병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J. Monso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BAR* 26.3 (2000): 20-35를 참고하라. 우가릿의 큰 서부신전에서 발견된 석비에서 바알은 오른손에 지팡이 혹은 천둥(thunder-club)을 가지고 있다. 이 천둥(thunder-club)은 동그란 머리를 가진다. 또한 Tell Mardih (Ebla)에서 발견된 Ceramic seal에 그려진 바알은 동그랗게 묘사된 머리와 함께 왼손에 나무에서 발아한(바알의 풍요로움과 연관) 긴 창을 들고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라토(Latto)는 야긴과 보아스를 바알이 들고 있는 무기인 홀과 지팡이로 이해하며 시편 93편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오즈)로 카오스를 무찌르고 새로운 창조세계를 설립(야긴)하셨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는 서부 셈족 세계와 솔로몬의 통치시대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56-159를 참고하라.

를 사용한 것이다.<sup>30</sup> 따라서 시편 48편 1-2절에 나온 크신 하나님(יהוה גדול), 큰 왕(מלך רב)같은 표현들은 우가리트 텍스트에 나오는 바알 서사시(Epic)와 평행을 이룬다. 바알 서사시에서 바알의 보좌는 너무 커서 다른 신이 앉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31</sup> 이런 이미지는 이사야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과 유사하다. 시편 24편 1-2절과 마지막의 시편 24편 7-10절에서도 바다와 강들을 정복한 폭풍신의 이미지가 연관된다. 시편 24편 7-10절에 전쟁의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גִּבּוֹר מִלְחָמָה)로 묘사된다(시 24:8). 더불어 하나님의 제의 행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묘사한다. 이 구절들은 예배식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앉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야 할 문들이 작기 때문에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크로스(Cross)는 시편 24편 7, 9절에 문들의 머리를 들고 찬양하는 것과 바알이 다른 신들을 꾸짖을 때 그 신들이 머리를 들어야 바알을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둘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였다.<sup>32</sup> 이러한 표현들과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통해, 큰 왕이신 하나님을 폭풍신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윗-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만든 거대한 두 그룹들로 인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용되었고, 시온은 짜폰산과 동일시되는 동시에 최고신(엘-엘리온)인 하나님의 리더쉽 아래 신적공의회(신)의 장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sup>33</sup>

30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50-155.

31 *KTU 1.6 I:43-67*; 번역과 해석에 관한 부분은 Nick Wyatt, *Religious Texts from Ugarit: The Words of Ilmilku and His Colleag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8), 132-133를 참고하라.

32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91-105.

33 라토(A. Latto)는 다윗-솔로몬의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으로 간주하기보다, 친 외교적 성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근거와 성경적 증거를 고려할 때, 다윗-솔로몬 기원설이 다른 기원설들보다 더 설득력이 높고, 시온신학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 3. 나가는 말

시온신학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러한 연구는 통시적 접근을 통해 시온신학의 발전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

격의 현상 유지 정책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본다. 솔로몬은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시 주변 국가와의 공통된 문화적 요소로는 바알(폭풍의 신)이 있으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도 바알과 관련된 건축 양식이 드러난다. 다윗과 솔로몬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좋은 관계(창 49장, 시 78편), 그리고 전통적 종교 상징인 법궤를 통해 예루살렘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로 전승을 사용하였다. 시편 78편 52-55절은 실로 전승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지만,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한 이후의 62-69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분열왕국 시기 예루살렘을 강조하기 위해 변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다윗-솔로몬 시대와 통일 왕국 시기의 정치적 상황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엘(EI)과 연관 지어 묘사하였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바알(폭풍의 신) 이미지를 하나님 묘사에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엘(EI)의 이름을 사용하여 바알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폭풍신 이미지가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며,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견 충돌로 잘 나타나 있다(삼하 7장). 라토는 철기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종교 시스템이 충돌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엘(EI)과 연관된 전통적인 야외 제의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 셈족의 바알 전승을 따른 영구적인 성전 건물이다. 나단의 거절은 하나님이 서쪽 셈족의 폭풍신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 결국 성전이 세워졌고, 법궤가 안치되었으며, 여기서 하나님은 바알 대신 엘(EI)로 불리지만, 여전히 폭풍신 이미지로 묘사된다. 라토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초기 철기 1기(Early Iron Age 1) 숭배 장소가 주로 야외 제의 장소임을 보이며, 시편 78편 60절을 근거로 실로의 성소가 장막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엘(EI)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실로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 예루살렘(영구적 성전 건물)으로 들어오는 전승을 통해, 폭풍신 바알의 서사시와 유사하게 묘사된다고 본다. 나아가, 고대 근동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동안 시리아-가나안 신에 대한 숭배가 확산되면서 초기 철기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엘(EI)로 묘사했으나, 솔로몬 시대에는 엘(EI)과 바알의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A. Latto,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1-282를 참고하라.

www.kci.go.kr

에서는 시온신학의 기원에 대한 주요한 네 가지 학설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여부스 기원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여부스족이 시온의 불가침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 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여부스족의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졌던 시온을 채택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으로 흡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온은 다윗 이전부터 종교적 중심지로 인식되었으며, 다윗의 정복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여부스족이 실제로 시온과 관련된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시온이 이스라엘 정복 이전부터 종교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성경과 고고학 자료의 부재는 이 기원설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이사야 기원설은 주전 701년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격 실패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신성화와 시온의 불가침성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설은 이사야서의 기록을 통해 예루살렘이 신의 보호를 받는 성스러운 장소로 자리매김한 배경을 제시한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은 신의 임재와 보호로 인해 가능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기원설은 시온신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시온신학이 단순히 이사야 시대의 특정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축적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 접근을 통해 시온신학의 기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로-법궤 기원설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으로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설은 법궤 전승이 시온신학의 기초를 형성했다

고 보며,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다윗이 법궤를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에서 종교적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온이 불가침성과 신의 보호를 상징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궤 전승이 시온신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성경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만 기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으며, 법궤 전승과 시온신학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 기원설은 법궤의 이동을 시온신학 형성의 결정적 계기로 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한적이다.

넷째, 다윗-솔로몬 기원설은 시온신학이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이 설은 시온신학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강력한 타당성을 가진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 삼는 과정에서 시온신학이 발전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시온신학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신학적 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다윗이 시온을 정치적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이를 종교적 중심지로 만든 과정은 시온신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시온신학은 다윗-솔로몬 시대에 확립된 고대 전승이지만, 이사야 시대를 거쳐 포로기와 포로 후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온 복합적인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시온신학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통이 이후 이사야 시대,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확장되면서 복합적 전승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온신학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을 넘어,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학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온신학의 기원을 연구함에 있어 통시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시온신학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전통과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온신학은 다윗-솔로몬 시대에 시작되어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온 다층적 전통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신학적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 참고문헌

- Clements, Ronald Ernest. *Isaiah and the Deliverance of Jerusalem*. JSOTSup 13. Sheffield: JSOT Press, 1984.
- Clifford, Richard J.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2.
- Cross Frank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Eiler, David L. "The Origin and History of Zion as a Theological Symbol in Ancient Israel."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68.
- Hayes, John H. "The Tradition of Zion's Inviolability." *JBL* 82 (1963): 419-426.
- Hjelm, Ingrid. *Jerusalem's rise to sovereignty: Zion and Gerizim in competition*.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Jeremias, Jörg. "Lade und Zion: Zur Entstehung der Ziontradition."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1971): 183-198.
- Koch, Klaus. "Ḥazzi - ṣafôn - Kassion: Die Geschichte eines Berges und seiner Gottheiten." in Bernd Janowski and Klaus Koch, eds.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OBO 129.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1993.
- Laato, Antti. *The Origin of Israelite Zion Theology*. T&T Clark: Bloomsbury Publishing, 2018.

- Ollenburger, Ben C. *Zion, the city of the Great king*. *JSOT* 4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Otto, Eckhart. "Silo und Jerusalem," *TZ* 32.2 (1976): 65-77.
- Roberts, JJ M. "The Davidic Origin of the Zion tradition."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2.
- Roberts, JJ M. "Zion in the Theology of the Davidic-Solomonic Empire."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collected essays*. Winona, Indiana: Eisenbrauns, 2002.
- Robinson, A. "Zion and sāphôn in Psalm xLViii 3." *VT* 24 (1974): 118-123.
- Stolz, Fritz. *Strukturen und Figuren im Kult von Jerusalem, Studien zur altorientalischen vor-und fuhisraelitischen Religion*. *BZAW* 118. Berlin: W. de Gruyter, 1970.
- Wanke, Gunther. *Die Zionstheologie der Korachiten in ihrem traditions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BZAW* 97. Berlin: deGruyter, 1966.
- Wyatt, Nick. *Religious Texts from Ugarit: The Words of Ilmilku and His Colleag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8.

검색어

시온신학, 여부스 기원설, 이사야 기원설, 실로-벧케 기원설, 다윗-솔로몬 기원설

[ ABSTRACT ]

## An Examination of the Origins of Zion Theology

Joon-Hyuk Lee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our major theories on the origins of Zion theology and explores how Zion theology developed and evolved over time. By analyzing the origins of Zion theology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each theory.

The study is structured around four main theories. First, the Jebusite origin theory suggests that a tradition of Zion's inviolability existed among the Jebusites prior to the conquest of Jerusalem, which David subsequently integrated into Israelite religion. This theory supports the idea that Zion was regarded as a religious center before David and later established as a political center. Second, the Isaiah origin theory argues that the failure of Sennacherib's siege of Jerusalem in 701 BCE established Zion as a sacred site under divine protection. This theory posits that Zion theology developed as a symbol of divine protection against external threats to Israel. Third, the Shiloh-Ark origin theory views David's transfer of the Ark of the Covenant to Jerusalem as pivotal to the formation of Zion theology. As the Ark was brought to Jerusalem, Zion became a symbol of God's presence and protection, thereby reinforcing its role as a religious center. Lastly, the David-Solomon origin theory attributes the establishment of Zion theology to David's conquest of Jerusalem

www.kci.go.kr

and Solomon's construction of the Temple, solidifying Zion as both the political capital and religious center of Israel.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avid-Solomon origin theory offers the most compelling explanation for the origins of Zion theology. During the reigns of David and Solomon, Zion theology became a central element in the political and theological identity of Israel. This tradition, which developed into a complex ideology over subsequent historical even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diachronic approach, showing that Zion theology is a multilayered tradition shaped and reinterpreted across various periods and events. As such, Zion theology remains an essential topic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nd religious identity of ancient Israel.

key words

Zion theology, Jebusite Origin Theory, Isaiah Theory, Shiloh-Ark Theory, David-Solomon Theory

투고일: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http://www.kci.go.kr)